

삶 속에 생동하는 대자유인의 '행로' 를 따르자

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如)'고 했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을 때의 마음상태를 멸진정(滅盡定)이라 했는데, 그것은 몸통이의 상태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느끼는 감각적 느낌(受)이나 그 감각적 느낌을 가지고 지각하는 것(想)을 모두 떨쳐 없애 버린 무념무상(無念無想)의 상태를 말한다. 한 마디로 무심(無心)이다. 그러니까 붓다가 깨달았다는 것은 무심으로 보고 무심으로 알았다는 것인데, 여기서 '붓다'는 것은 물질적 현상(色)을 말하고, '안다'는 것은 사고가 만들어내는 이름과 문자의 세계(名)를 말한다. 그러니까 고따마 붓다가 깨달음에 이르기가 지의 수행의 과정은 결국 5온에서 말하는 수(受)와 상(想)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고따마 붓다가 깨달았다는 것은 그 어떤 선입견도 없이 내 목전에 펼쳐지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직관(直觀)했다는 뜻이다. 그것은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통해 세상을 보거나 인다는 뜻이기도 하다. 붓다는 그 선입견을 '육망에 가득 찬 기대감'이라 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다는 말이다.

붓다는 생사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

붓다는 어떤 분인가? 이제 인도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붓다라는 이가 어떤 분인지를 고따마 붓다의 입을 통해 알아보자.

한 바라문아 도대체 어떤 사람이 붓다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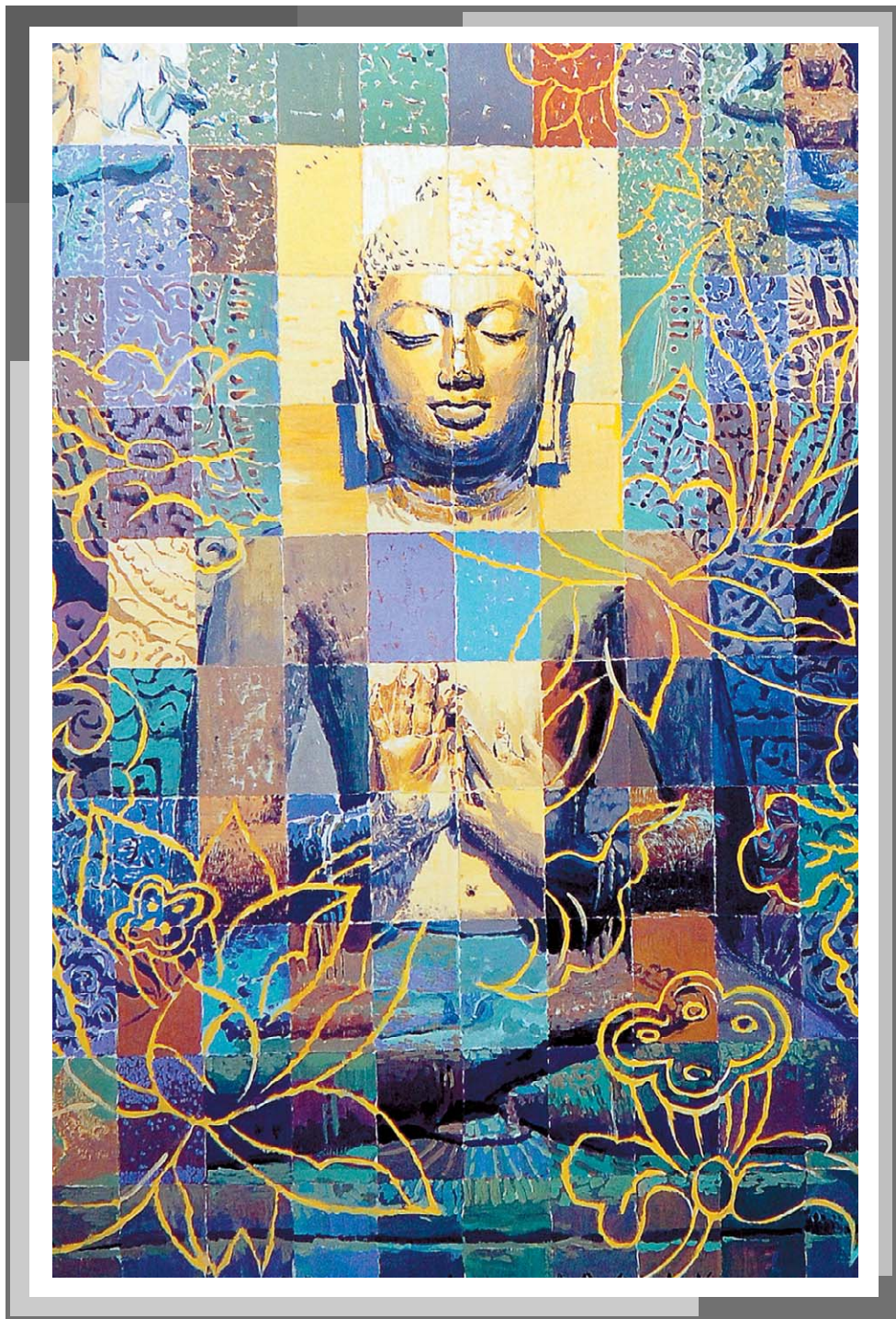
"바라문아, 증생의 길고 긴 역사를 관찰해 보니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직면하는 고뇌는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객관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내면적으로 망상에 매달리는 것에서 벗어나 독화살과 같은 번뇌를 없애버렸으니 생과 사의 문제에서 초래되는 갈등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나를 붓다라고 말한다."

붓다란 어떤 존재인가를 붓다 자신의 말을 통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붓다는 분명 역사나적 존재이지 초월적 존재가 아니었다. 고따마 붓다를 초월적 존재로 보려는 것은 신앙심의 발로이겠지만 그러한 마음만으로는 붓다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편,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된 다음의 삶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다. 구도의 길에 들어선 시냇물의 삶이 현등번개가 치고 폭포수가 내리 쏟아지는 듯한 치열한 투쟁의 삶이었다면 정각(正覺)한 후의 붓다의 삶은 잔잔하고 평온한 자애가 흘러넘치는 성자의 삶이었다. 전반부는 오직 지혜를 완성하는 길이었던 후반부는 성자의 잔잔하면서도 그칠 줄 모르는 사랑의 실천과정이다.

정각 후의 삶은 사랑의 실천과정

성자로서 붓다의 삶은 자비심에 충만한 인간애(人間愛)의 분출이었다. 그의 인간애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깨달음을 얻은 이의 양심의 발로이자 새로운 시



대적 사랑에 눈뜬 것이다. 붓다로서의 그의 삶은 무지(無知)와 맹목(盲目)의 굴레에 갇혀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동정심(同情心)의 발로였으며,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은 오직 지적 성숙(智性)을 알아 그칠 줄 모르는 가르침으로 나타났다.

여든이 넘는 노구(老耄)를 이끌고 인종의 날을 향해 천리 길을 걸으면서 자비에 가득 찬 말씀을 나누었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자신을 빌고자 하는 이면 그가 누구이든 가리지 않고 가르침을 주었다. 29살에 출가하고, 6년간 수행해서 35살에 성불한 붓다는 만 80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45년간 오

로지 전법의 길 위에 서 있었다. 80평생 중 가장 긴 기간 동안 전법을 한 것이다. 이러한 전법을 통해서 불교는 새로운 인도사회의 사회운동, 정신운동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한 점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에서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깨달음을 얻고 평생 노구를 이끌고 설법의 길에 나섰다는 점이다. 붓다는 와라나시에서 60명의 제자들을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비구들아, 나는 신들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도 역시 신들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볼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볼 것이다

◀ 조재익 작 '붓다-꽃'.

되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 그리고 세상에서 구하는 미래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법을 전하러 가자. 다른 마음으로 갈 때,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이치에 맞게 조리와 표현을 갖추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법을 전하라. 원만 무결하게 청정한 범행(梵行)을 설하라. 증생들 가운데는 번뇌가 적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하면 약에 떨어질 것이나 법을 들음으로 성숙해질 것이다. 비구들아, 나도 법을 전하기 위하여 우두월라의 세나니 마을로 가서 설법하리라."

이 전도선언은 불교 역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여기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붓다와 비구들은 동일한 자격으로 전도에 나선다는 것이다. 둘째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과 번민에 빠져있는 증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나선다는 것이며, 셋째는 한 사람씩 흠어져 가려고 하였으나 불법을 전파하고자 하는 길에는 저항이나 박해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넷째는 감정에 호소하여 절규하는 예언자적 태도나 권위를 앞세워 맹목적으로 따르게 할 것이 아니라 조리와 표현을 갖추어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섯째는 출가 희망자가 있을 때는 현지에서 입문시키라는 것이며, 여섯째는 붓다 자신도 홀로 전도의 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붓다의 전도선언이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당시 바라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스승과 제자 사이에 비법(秘法)으로 전수해 온데 비하여 붓다는 자신의 깨달음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붓다 이후 불교역사의 전개과정은 바로 이 전도선언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고따마 붓다가 이 세상에 법음을 전하다가 최후를 마친 것은 서력 기원전 486년의 일이다. 그것은 역사적 사건일 뿐이고, 그 분의 역사적 존재의 의미는 기원전 486년의 사건과는 관계없다. 오늘날의 불교도들의 마음에 고따마 붓다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살아 있으면 붓다는 우리 앞에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지만 불교도들이 붓다의 정신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 분은 벌써 죽어버린 것이다.

출가정신 없다면 수행자 아닌 사제

불교도는 붓다의 부활(復活)을 회구하지 않는다. 붓다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구현하기를 바랄 뿐이다. 고따마 붓다가 증생의 현실에 살아 있느냐 죽어버렸느냐는 기원전 486년의 사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불교도들의 마음자세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붓다가 오늘날의 불교도들의 가슴속에 살아 있으려면 그 분의 삶을 생생하게 조명하고, 그 분의 삶이 우리의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우고 있는가를 늘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만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붓다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고따마 붓다이다. 붓다는 자신의 시대가 안고 있는 온갖 모순과 불합리를 깊이 통찰하고 그것을 일깨우고 개선하는데 앞장섰던 역사적 존재였다. 교리적으로 말하는 붓다는 초역사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초역사적인 존재로서 붓다에게는 생로병사(生老病死)도 없고 깨달음의 극적인 순간도 없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초역사적 존재로서 붓다를 생각한다면 그의 불교는 이미 역사를 벗어나게 된다. 역사를 벗어난 불교는 신화화된 불교에 지나지 않는다. 신화화된 불교에서는 승려는 고따마 붓다의 뒤를 잇는 수행자가 아니라 사제(司祭)로 전락하고 만다. 사실 오늘 이 땅의 많은 출가자들이 사제의 역할에 매달려 있을 뿐 붓다의 정신으로 살려는 몸짓은 적어 보인다. 바로 이것이 한국불교의 위기이다.

사찰의 수가 적고 규모가 작아서 불교가 중흥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아무런 사찰이 허름하고 작더라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출가자의 정신이 살아 있다면 불교는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사찰의 규모는 거창하고 화려한데 그곳에 살고 있는 출가자들의 정신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존경해 마지않는 고따마 붓다 역시 죽어버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제 불교를 증생의 역사에서 생동하는 삶의 가치로 되살려내려면 신화화된 불타관(佛陀觀)에서 벗어나 인간 고따마 붓다의 진면목을 읽어내야만 한다.

붓다와의 만남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우리가 찾는 붓다는 우람한 불전에 인치된 불상도 아니고, 우상화되고 신격화된 불상도 아니다. 자신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았던 인간 고따마 붓다이다. 붓다의 삶은 붓다 자신의 존재의 표현일 뿐이었다. 그래서 붓다의 삶은 붓다가 살았던 구체적인 역사상황을 통해서 읽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고따마 붓다와 오늘 우리의 만남은 항상 새롭게 신선미가 넘치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고, 글과 머리로 만나는 건조함이 아니라 삶과 가슴으로 만나는 온전함이어야 한다.

어느 누구의 삶도 그가 놓인 구체적인 상황에서 전개되는 활동일 뿐 정형화된 어떤 패턴이나 모델이 있을 수 없다. 패턴을 짜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면 역동적인 생생한 삶이 아니라 관념화되고 박제화된 죽은 삶이 되고 만다. 고따마 붓다의 삶을 생생하게 읽어내고, 그를 본받고자 하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불자다운 삶인가를 모색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성열 스님(강남포교원장, <고따마 붓다> 저자)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중단

불교 조계종 삼화불교

■ 중정대행 총무원장 : 혜인

■ 총무원

총무부장 : 총무국장 : 남산
재무부장 : 도불 재무국장 : 대도
교무부장 : 정덕 교무국장 : 해인
사회부장 : 자명 사회국장 : 법천
문화부장 : 지우 문화국장 : 지운
문화재관리국장 : 운하

교육원장 : 일봉 포교원장 : 정산
교육부장 : 동산 포교부장 : 보운
교육국장 : 지원 포교국장 : 서산
국제포교국장 : 원광

■ 총림

- 삼화총림 백화사
- 부산총림 흥국사
- 경남총림 백천사
- 강원총림 조주선관
- 충북총림 청룡사

■ 중앙위원장 : 성민

■ 부 종 정 : 혜일

기획실장 : 정금옥
총무과장 : 조 일
서무대리 : 영정재

기 획 실 장 : 정금옥
총 무 과 장 : 조 일
서 무 대 리 : 영정재

■ 원로원장 : 해산법종, 성민, 혜일, 혜정, 백공, 일봉, 해남, 혜경, 월산

■ 종회의장 : 백공정봉

■ 중앙선원장 : 도일

■ 지방교구 총무원장

서울교구총무원장 : 상산
경기남부교구총무원장 : 도불
경기북부교구총무원장 : 수원
인천교구총무원장 : 혜정
강원교구총무원장 : 광덕
충남교구총무원장 : 무광
충북교구총무원장 : 백공
대구교구총무원장 : 원명
경북교구총무원장 : 도오

경남교구총무원장 : 도홍
부산중부교구총무원장 : 정오
전북교구총무원장 : 정산
광주전남교구총무원장 : 지각
제주교구총무원장 : 덕산
일본동경총무원장 : 정대
미국뉴욕주총무원장 : 성산
중국남경총무원장 : 해산
일본오사카총무원장 : 인해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삼화불교학림

학 장 : 범중 부학장 : 해운
교 수 : 범중, 백공,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정금옥, 영정재
운영이사 : 윤하, 성산, 원명, 본각, 도우,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덕운, 청호, 현덕, 도오,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법해,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해능, 대산, 원광, 모현, 지성

■ 삼화불교대학림

학 장 : 혜인
교 수 : 범중, 일봉,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범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해철, 정현, 철산, 덕산, 덕승, 진법, 동안, 진제, 연각, 성무, 철산.

■ 중국남경종의약대학

총 장 : 오 멘 화 유학생처장 : 손 영 진
학생주임 : 예 성 호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 총무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총무국(02)511-2026-7/전송(02)511-2028/총무원장실(02)511-1080
종단사업부 : (02)549-1918/조계종삼화불교신문(02)3445-7375-6

인터넷주소 삼화불교종단 : www.shbuddhism.or.kr 남경종의약대학 : www.njutcm.co.kr
삼화불교학림 : www.njutcm.co.kr E-mail주소 : samhwade@hanmail.net
삼화불교신문 : www.jogaejong.or.kr E-mail 주소 : samhwade@naver.com